제331회국회
(임시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3월3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현안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광주광역시
   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심사된 안건

1.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현안보고 ····· 1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광주광역시
   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주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18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및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일괄하여 현안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처음으로 특위에 출석하신 광주광역시장 겸 대회조직위원장이신 윤장현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장현 시장님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회조직위원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장님,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윤장현입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저희 광주U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지적, 지원하는 논의를 해주시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에 기대하도록 성공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감사합니다.

---

1.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현안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광주광역시

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1시04분)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점검에 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종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준비상황과 대책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대구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 개최되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경기대회입니다. 정부는 이 대회가 운영은 물론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 등 모든 면에서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대회 개요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 및 전·남북 일원에서 치러지며 21개 종목 272개 세부종목에서 170개국 선수 및 임원 2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6857억 중 33%인 2274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회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 경기장 4개소 및 선수촌 평균 공정률은 2월 말 현재 85%입니다. 경기장은 올 5월에 완공하는 양궁장을 제외한 모든 경기장이 3월에 완공됩니다. 선수촌은 주경기장 인근 재건축 아파트를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95%로 6월 26일 개촌할 예정입니다. 보도진을 위한 메인 미디어센터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꾸려지며 6월 30일에 개관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부의 대회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회시설을 비롯한 운영 전반에 대해 완벽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무회의나 각급 회의를 통해 대회를 홍보하고 입장권 구매를 독려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지원 현황 및 계획입니다. 대회 운영비 및 시설비의 국고지원은 총사업비 6857억 원 중 33%인 2274억 원입니다. 국고 이외의 체육진흥투표권 및 옥외광고 수익금 등 438억 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는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운영입니다. 조직위원회와 광주시 그리고 문체부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문화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겠습니다. 문체부 2차관을 단장으로 문화예술, 관광, 홍보, 대회운영 등 4개 분과로 된 대회지원TF를 구성했고 3월부터 대회가 종료되는 7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제1차 TF 회의는 모레 3월 5일 광주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TF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확보, 국내외 홍보를 통한 관람객 분위기 조성, 대회시설·안전·교통·숙박 등 전반의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서 대처함으로써 대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U대회를 국제경기대회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회를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르기 위해 최대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신축 경기장도 대학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당초 총사업비 8171억 원 대비 1314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시설비를 아끼는 대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비는 1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체육진흥투표권 및 옥외광고 수익금 등을 조기에 지원하여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반드시 국제경기대회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 및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높은 시민의식을 자랑하는 예향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가일층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종 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고 순서입니다만 광주광역시장이 2015년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보고와 함께 대회조직위원회 보고를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겸 대회조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윤장현입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김황식 전 총리님을 같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모시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광주U대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방금 문체부 차관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우선 광주U대회는 금년에 국내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주, 전남·북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고 국제행사로서는 호남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경제적이고 수범적인 재정운영 사례가 되도록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치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늘 안전한 대회를 최우선으로 삼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스포츠를 통해서 차세대 미래 젊은이들의 남북 화해 무드로 발전될 수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재생 재건축 방식의 선수촌을 건립해서 전체적인 투자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국제대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이번 광주U대회입니다.

아울러서 광주U대회는 그동안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민주화라는 저항의 역사 속에서 이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열린 광주 그리고 광주를 비롯한 한국의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그들의 열정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대회로서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한 것은 유엔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로 EPICS포럼이라고 에코(ECO) 그다음에 평화(Peace), IT, 문화(Culture), 스포츠(Sport) 이렇게 해서 그동안 유스리더십 프로그램(Youth Leadership Program)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U대회를 통해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배려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문체부가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페이지수를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전체적인 개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윤장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익 위원 윤장현 시장님, 대회기간이 언제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7월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최동익 위원 그런데 3일부터 14일이면 우리나라가 우기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부나 조직위나 우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보고는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와 관객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야외에서 여러 가지 부대행사들도 준비하고 있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그렇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런데 지금 우기에 국제대회를 치르게 됐는데 그 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인근의 실내 시설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대회일정은 우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기에는 경기를 할 수 없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문체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우기에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은 골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는…… 나머지 종목은 거의 다 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겁니다.

○최동익 위원 육상은 다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상관없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골프 외에는 경기에 있어서 우기와는 상관없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특별하게 별

지장은 없습니다.

○최동익 위원 어쨌든 관객 동원에는 문제가 있겠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아무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국별로 시민 서포터스를,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각 나라를 배정해서 관객들이 응원할 수 있는 시민 서포터스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문체부요, 지금 유치활동비하고 트랙 이런 면에서 계속 육상트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점검을 해서 이상 없다고 판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어떤……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동익 위원 일단 시민단체들이 요청해 가지고, 대회유치활동비 19억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문제하고 육상트랙 자재 문제에서 1억 원 이상 절감이 가능했지만 못 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는 전혀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19억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최동익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최동익 위원 윤장현 광주시장님,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도 그렇고 식중독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미리 발견하고 했는데 특히 우기에는 굉장히 심한, 식중독이라는 음식이 상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세우고 계신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기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문제가 가장 염려됩니다. 특히 광주보건환경연구원과 광주에 있는 2개 의과대학팀들이 함께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거기에 아마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청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실무 주관 기관이니까 그것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후 위원 원주을 출신 이강후 위원입니다.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안 나오셨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장관님은 지금 상임위가 같이 열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강후 위원 상임위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와는 관련이 없지만 원주의 현안사항이 있어 가지고, 문체부 차관께 평창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아이스하키 경기장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모나코 몬테카를로 총회에서 올림픽 어젠다 2020의 하나로 단일 도시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는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발표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강후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주시민들은 IOC 결정이 있기 2년 전부터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원주시에 재배치할 것을 조직위원회와 강원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강후 위원 그런데 재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조직위와 강원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분산 개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경기장을 건설하게 되면 저희가 공기를 맞출 수 없는 것도 하나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후 위원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아이스하키 경기장 분산 배치가 불가하다고 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당시에 IOC에 제출한 비드 파일(bid file)이라는 게 있어요. 유치신청서가 있거든

요. 거기에 보면 종료 후에 사후 활용방안으로 원주로 이축해야 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차관님의 입장하고는 다른데 이것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저희 정부의 입장보다 지자체와 조직위원회, 강원도의 입장이 우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후 위원 글쎄요, 정부에서는 강원도에다가 그리고 동계올림픽위원회에다가 책임을 넘기는데 그런데 사실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국민들하고의 약속인데 비드 파일에는 약속대로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정부라든가 조직위원회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강후 위원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강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축하려면 한 600억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주로 이축할 때 600억 원 정도 드니까 짓지 않더라도 강원도라든가 또는 올림픽조직위원회라든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600억 돈을 원주에다가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올림픽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강후 위원 차관께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약속을 해 놨으니까 문체부에서도 조직위원회라든가 강원도에 약속을 지켜라,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관계기관과 협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강후 위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보시겠다,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시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강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 순서……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주선 예, 황 위원님!

우선 의사진행발언 듣고 질의하십시오.

○황영철 위원 강원도 홍천·횡성 지역구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 동계특위가 사실 자주 회의를 갖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상임위와 겹쳐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할 때 의사일정과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협의들을 사전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는 유니버시아드 준비상황만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이강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의제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들, 정부부처와 조직위와 지자체와 여러 가지 이견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선 안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하신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어제까지 평창특위 위원을 사퇴할까를 고심을 하다가 오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평창특위가 한 일들을 보면 확실하게 U대회나 평창올림픽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해결하는 데 기여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별성과 없이 특위가 구성되는 전형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림픽은 또 U대회는 국가적인 대사인데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 주고 또 도와줄 점은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협력하는 것도 미진하고 또 문제 개선에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런 특위에 제가 계속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창이나 광주 이해당사자도 아니고 제가 여기 있어야 될 특별한 존재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전향적인 협력과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평창특위하고 국회의 교문위원회가 연석으로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상임위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준비하시는 단체와 국회와 정부가 좀 더 함께 힘을 모아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 보고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동계특위가 정말 왜 있는가? 오늘도 이 의제가, U대회도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평창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데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황영철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에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이게 위원들 간에 5분씩 발언해 가지고 이 취지가…… 정말 위원님들이나 올라오신 시장님, 차관님,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 또 시장님도 올라오셨으니까 오늘은 이대로 하고 국회가 없는 3월에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조율해서 특위와 함께 교문위원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지금 U대회의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지원해 줄 것이며, 또한 평창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 문제라든지 분산 개최 문제라든지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정리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가고 있거든요. 이게 2년째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특위 활동 지금 거의 2년 되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오늘 이후에 적합한 날짜를 잡아서 조속한 시간 내로 연석회의를 해서 차관님이 아니라 장관님이 오시고 또 평창조직위 위원장님 오시고 U대회 위원장님 나오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 틀 속에서 원스톱으로, 원샷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우선 황영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광주U대회가 4개월여 앞으로 당겨져 있는 상황에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본회의 쟁점도 여러 가지 많고 오전에 상임위원회도 있고 위원님들이 특위는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양당 간사님들이 이번에는 광주U대회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양당 간사들이 합의를 하셔 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지원특위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이 합의를 해 오시면 위원장으로서는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역할을 모색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민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위가 법률안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상임위원회에 일임이 되어 있는데 특위는 특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심의해야 될 의제나 안건이 많은데 광주U대회나 평창동계올림픽만 가지고 장시간 심의하고 토론하고 건의를 받고 해결점을 모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마련해 가지고 U대회나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 토론을 하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관계 상임위에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특위위원으로 상당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연석회의는 갖지 못했지만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때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나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을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심의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안민석 위원님 말씀대로 연석회의를 한번 개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순서대로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입니다.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문화관광부장관실에 있는 공무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지금 문광부의 준비상황 보고에 따르면 총 지원액을 438억 원으로 예정을 하셨는데요. 광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의

의지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저희는 광주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 안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조직위 차원에서 옥외광고 및 체육투표권 수익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 운영비와 관련해서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직위 요구가 481억이고 정부안이 417억인데 481억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투표권이나 옥외광고권은…… 올해 또 다른 대회가 유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랑 같이 비율대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조직위하고 좀 더 상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상의를 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때도 논의가 있었고 제기가 있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안전한 대회를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직위에서 소방·경찰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있었는데 컨트롤 타워가, 지난번에 인천대회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논이 있었는데요. 여지없이 지금도 국정원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이미 국정원에서 팀이 가동되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리고요.

또 31사단과 203여단 그리고 대구에 있는 2작전사령관님께서도 저희에게 참모를 파견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특별히 최근에 IS 테러 문제에 있어서 무슬림권에서 온,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불법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관에서 밀착해서 여러 가지 체크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것은 업무 조율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대회유치신청서에 안전대책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대처, 대응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조직위원장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지금 겸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책임성을 부여해서 말씀하시는 치안, 경비, 테러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정원장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행령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 효율성과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을 감안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위원님의 지적대로 각 제단위에서 협력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려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일부 종목에서 남북단일팀 구성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광주시는 2013년부터 두 통로로 해서 남북한이 함께 이 일을 평화적인 대회로서, 남북의 의미 있는 대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 축은 광주광역시 산하 민간단체에서 북측과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는 축이 있고요. 보다 중요한 축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고 계셔서 렘케라는 스포츠특사를 북에 직접 방문하도록 해서, 두 가지 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고 있는데 역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의 바람은 분단 70년, 광복 70년에 광주U대회가 평화를 향한 청년들의 큰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큽니다마는 남북관계 긴장 여부의, 특별히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30초만 제가……

지난번에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응원단이 안 옴으로 인해서 좀 제대로 안 됐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일팀 구성하는 문제하고 응원단 파견해서 오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굉장히 부합이 된다고 보고요,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저도 조직위원장으로서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간절한 저희들의 바람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성 위원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황영철 위원님 또 안민석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올해 10월 2일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있고 이제 7개월이 채 안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또 두 분 간사님이 좀 상의해 가지고 4월 국회에는 이 점도 좀 점검하는 회의가 됐으면, 의사일정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2월 국회는 설연휴 때문에 한 10일간 정도 사실상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의사일정이 좀 축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종 차관님, 지난번에 작년 예산 때 문경군인체육대회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한 200억 배정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광주U대회가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데, 지금 한 4개월 남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한성 위원 4개월 채, 4개월 정도인데 좀 뜨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광주U대회 많이 알려지고 방문도 하고 좀 이렇게, 또 광주시내에서도 좀 분위기가 뜨고 이런 분위기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방송만 보고 현지에 제가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윤장현 시장님 어떻습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말씀 주신 대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아주 큰 대행사인지는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를 풀어야 될 일들도 많으셔서 그런데,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평창올림픽 D-3년' 이런 문구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희들 광주U대회 D-100일을 맞아서, 이제 122일 남았습니다마는 광주시내에서도 D-100일 기점으로 최선을 다하겠고 오늘도 이 회의 마치면 서울특별시를 찾아서 서울시내에 여러 가지 광고탑부터 시작해서 대국민 홍보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뭔가 아직도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 물론 평창이 워낙 이렇게 커서 평창이 D-3년인데도 거기에 다 가려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같은 입장에 있는 문경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같은 관심사항이 북한 선수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좀 관심인데 단일팀 구성 또 분산 개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우선은 저희들이 성화봉송,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팀보다 일단 북한팀이 잘 참여를 하는 것과 몇 개 종목이라도 가능하면 원하고……

○이한성 위원 지금 신청 상황 없습니까? 아직……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이메일로 이미 북한의 참가 의사는 들어왔습니다.

○이한성 위원 규모는 아직 밝히지 않았고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아직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한성 위원 아,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요.

그것도 유니버시아드에 대해서는 세계군인체육대회보다는 조금 관심이 덜한……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지금 한 210명 규모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선수들이 오고 거기다가 응원단까지 온다면 문경대회도 대단히 뜨거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학생들의 평화축제이니만큼 북한 선수들이 많이 오도록 막후에서 잘…… 렘케 위원입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이한성 위원 렘케 특보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두 분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에는 유스호스텔 이런 시설이 없다고 지적이 나오는데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없습니다.

○이한성 위원 진작 좀, 준비 유치한 지가 오래되는데 민간자본이나 이렇게 해서 유스호스텔이 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시장님 당선이 작년에

됐으니까 책임 추궁하기는 그렇지만 숙박시설이 의외로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선수촌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렸듯이 도심 재건축을 통해서 특별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를 찾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민박을 서로 함께 공유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홈스테이도 좋은데,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유스호스텔 지으라 소리는 못 할 테고 홈스테이라든지 대학기숙사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학생 간에 평화친선, 스포츠 교류가 잘돼 가지고 차관님 얘기하신 대로 국제경기대회의 모범이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잘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잘 성공한 뒤에 문경대회도 성원 좀 잘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 위원 박혜자입니다.

남북 U대회에 대해서 시장님과 차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상 2009년도에 광주U대회를 유치할 때 광주는 남북단일팀 구성을 약속한 바 있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박혜자 위원 그랬는데 최근에 남북단일팀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말한 걸 들으면 언론에 '단일팀을 구성하려면 최소한 대회 개최 3개월 전에 남북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3개월 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저도 일부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곧 3개월이라는 한시 기한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오히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단일팀 또는 성화봉송 이런 모든 문제는 남북의 긴장 관계 또 화해협력 그런 전체적인 기조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돼서 저희 문체부와 정부로서도 이 기회를 8·15를 앞두고 7월에 치러지는 U대회에서 남북화해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져 주시면……

○박혜자 위원 시장님 의견은 희망사항이시고요.

차관, 대답해 보시지요.

남북단일팀 구성하는 문제는 누가 뭐래도 정말 남북 간에 물꼬를 트는 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U대회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문체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희는 구체적으로 지금 남북단일팀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체육회에서 북측 체육회와 같이 협의될 내용이고 선수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각 협회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일팀 구성이라고 하는 게……

○박혜자 위원 아니, 정부가 지금 가만히 계시면서 대한체육회에다 이 문제의 책임을 미루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대한체육회가 이건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문체부에서 담당 차관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민간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혜자 위원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일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의 물꼬를 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체부도 움직이지도 않고 통일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체육회에다 맡겨 놓고만 있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실제 광주U대회 조직위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대회 준비를 한 선수들이 단일팀이 구성되면 참여 기회가 줄어든다라고 해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남북단일팀 구성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 우리나라가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과거에 일반적

으로 탁구나 축구 같은 단일팀을 구성하는 데도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단시간에, 3개월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불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시장님, 대답해 보시지요.

원래 유치할 당시에 단일팀 구성을 약속하고 유치를 했는데 이 문제, 문체부에서도 저렇게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시장님은…… 답변하고는 다르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렘케 특사를 통해서 또 그리고 민간영역의 관계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계속 촉구하고 있고, 북측에서는 지금까지 듣기로는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길이 있으면 그런 관심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한 팀이라도 구성을 하셔서 정말 물꼬를 틀 수 있는, 정말 토대를 광주에서부터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5월에 이희호 여사님께서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문체부에서 함께 협력해서 의제로 좀 올려 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동의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5월 방북 때 이 문제를 의제로 넣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U대회가 개최가 되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출국 예상되는 인원이 1만 2650명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만 2650명을 광주까지 수송을 하자면 국제공항에서부터 광주까지 KTX 필요하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박혜자 위원 지금 KTX가 두 편 다니는데 몇 편이나 증편해야 되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여섯 편 정도 증편해서 8회 정도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그 증편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

○박혜자 위원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KTX 증편이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도 동의합니다.

○박혜자 위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국토부와 코레일에다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 수송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우리가 아쉬웠던 것이 남북 간에 교류의 틀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 소위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오지를 못했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U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성화봉송도 북한 가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단일팀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혜자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광주U대회를 4개월 앞두고 우리 특위 차원에서 본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가장 중

요한 것은 혹시 못 챙긴 일은 없는가, 광주시나 또 정부부처 간에 논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혹시 챙길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지금 우리 특위에 이렇게 회의가 열렸는데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 이런 것 없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특별한 사안이 안 들어 있어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셔서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잘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특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받고 또 저희들의 어려움을 지원 요청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평창 3년 앞두고 D-3년 하고 있는 판에 저희들이 U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또 사실은 법령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구성은 따로 안 돼 있어서 함께 이렇게 다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방금 많은 의견들 주셨듯이 성화봉송,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 북한의 대회 참가 문제가 U대회, 스포츠대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한반도 평화의 분단 70년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로 꼭 삼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또 차관께서 아까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러면 아주 시급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은 별로 없는 걸로 파악해도 되겠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실무적으로 계속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우리가 북한선수단의 참가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 여러 차이가 있어요. 일단 북한선수단 참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광주시가 약속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광주시가 중심이 돼서,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또한 우리가 늘 북한선수단 참가가, 참가해서 같이 대회를 치러내고 그리고 단일민족으로서의 화합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 주는 건 매우 의미 있지만 참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되면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인천대회 앞두고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벌어졌고 그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만 있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좀 더 지혜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부 관계자들 모두 다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몇 가지 문제점들이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학 쪽에다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좀 봤고요. 이것 사실이 아닙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 두 군데에 저희가 수영장과 다목적 종합체육관을 지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영철 위원 선수촌 사용료가 법정으로 갔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법적으로 사용기간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은 46일을 원래 봤었고 또 주민들은 110일 정도로 보고 있어서, 우선은 선수촌 사용하는 데는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배상의 문제는 민사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적으로 단계에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김윤석 사무총장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황영철 위원 사실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U대회에만 집중할 수 없잖아요? 사무총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예.

○황영철 위원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어떤지 단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김윤석 첫째 우리 광주U대회는 시설을 많이 안 지었습니다. 70개 경기장 중에서 4개만 짓고 나머지 66개는 기존 시설을 쓰기 때문에 시설에는 문제가 없고요. 선수촌도 재건축 아파트

에 해서 95% 다 지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송 문제 이게 가장 시급하고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현재 하루 두 편인데 편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총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동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문광부 입장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 사실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좀 더 협의해 가지고, 여섯 편 정도 증설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는데 그게 다른 거와 좀 연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선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협의해서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하여튼 제가 국토위원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잘 좀 협조……

○황영철 위원 상임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광주U대회가 7월 3일 날 하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광주U대회가 열린다고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시장님?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말씀 주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자꾸 평창 쪽에만 많이 쏠려 있어서……

○안민석 위원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사실 특위 위원인 저조차도 '아, 이번 7월 달이구나',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해요.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지금 남았어요. 이걸 평화 U대회로 만드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신청서에도 남북이 함께하는 걸로 신청을 했고 또 13년 러시아 카잔 총회에서, FISU라고 하나요? 그 총회에서도 남북이 함께하는 거에 대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렇게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 줬고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해 주는데 이걸 못 하면 우리가 바보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남한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일까, 북한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일까, 아니면 양쪽 다 반대하는 것일까, 양쪽 다 하고 싶은데 또 제삼의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인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저희는 그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렘케를 통해서나……

○안민석 위원 북한은 원하고 있다고 보세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제가 깊게 알겠습니까마는 반대하지 않고 늘……

○안민석 위원 북한도 찬성하고……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의미 있게……

○안민석 위원 그러면 남한 정부도 찬성합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우리 정부에서도 차관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민석 위원 차관님, 남한 정부에서 찬성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희는 뭐 단일팀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런데 남북이 같이 찬성하는데 그러면 왜 이게 안 된다고 보세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북한의 의중을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북한의 문제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상호간에,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자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일팀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북경올림픽 단일팀 공동대표단으로 몇 개월 동안 북하고 실랑이를 벌인 경험이 있어요. 지금 단일팀을 전 종목에 하는 것은 물

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한두 개, 두세 개 종목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가능합니다. 단일팀을 몇 개 종목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동입장, 이것은 대회 한 일주일 전에라도 남북이 뜻을 모으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공동응원, 이것도 역시 지금이라도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항상 북한의 태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일관됐어요. 남한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사되고 성사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만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시고 줄행랑을 지금 치신 것 같아요. 말씀처럼 통일이 대박 되려고 그러면 그만큼 북한을 여유 있게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가지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가 화요일 날 있나요? 'U대회 남북이 함께하는 대회로 만들자', 'U대회를 통해서 광복 70주년 되는 올해 남북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자' 그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시면 U대회, 평화 U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난 3·1절 경축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스포츠·문화·예술에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원칙적인 면에서는 동의하고, 하지만 지난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한 출전 문제 가지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민석 위원 제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맞는 뭔가 행동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북에게, 국민들에게 U대회를 통해서 대박의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북이 U대회에 참여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대회로 만들어 보자, 그것을 저는 대통령이 막연하게 '문화·체육·예술을 통해 가지고 남북이 평화를 만들자'…… 막연한 이야기는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U대회에…… 올해가 광복 70주년 되지 않습니까? '이 U대회를 통해서 평화 U대회 만들어 보자.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겠다. 정부부처, 광주, 대한체육회 모두가 이 문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말씀을 저는 대통령이 해 주실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박대동 위원입니다.

김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대동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금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8·15는 정말 뜻깊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앞두고 우리가 광주U대회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한선수단이 참여하느냐, 단일팀이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정부부처 간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조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것이 있어서 그러신지 내용은,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건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조직위원회하고 광주시에서 남북 성화봉송이라든지 그다음 북한팀 초청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단일팀을 만드는 어떤 노력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박대동 위원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적어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됩니다. 그것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대동 위원 우리 시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제 업무파악이 다 되셨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박대동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매끄러운 운영과 안전한 대회, 경제적인 대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끄러운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인천에서 있었던 아시안게임에서의 시행착오, 대

표적인 게 선수 수송관계였습니다. 우왕좌왕한 것 아시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박대동 위원 보니까 선수단이 아마…… 아까도 수송관계 좀 신경을 쓰시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여러 번 사전연습을 하시든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경제적 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경기장이 4개가 신설되어야 돼요. 매우 경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기는 한데 사격경기장이 사후에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개는 위탁공고를 하고 있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박대동 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이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쇼핑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쇼핑몰 쪽으로까지의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수영장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광주여대에 준비하고 있는 종합체육관은 컨벤션으로도 쓸 수 있도록 미리 음향효과 같은 것부터 함께 준비를 했었습니다.

○박대동 위원 경기장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수영경기에 대비할 수 있고 그런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의 목적에 맞게 사후 활용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잘 알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안전, 북한 대표팀이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우리 주변에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정말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철저히 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테러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맞습니다.

○박대동 위원 최근에 IS 대원에 우리 김 군이라고 그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마지막도 안전인데요. 그 테러를 포함한 안전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경기장을 가는, 바로 경기장 주변이 아니고 광주시내 어느 곳에 테러혐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예컨대 시장님이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경찰에 대테러 유관기관이 이미 총경급으로 해서 배치가 돼서 저희들과 함께 군과 경과 통합민방위체제가 바로 작동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만약에 시장님이 목도하시는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관계자 모든 분들이 여러 번 반복반복해서 숙지를 하고 숙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초간에도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얼마나 숙지하셨는지 그것을 일부러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준비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청년들의 축전이고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막힌 물꼬를 뚫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큰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북한팀이 참여하는 그런 소식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도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감사합니다.

○박대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경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상황보고서 받아 보고요, 첫 장을 보고 사실 뒤를 안 보게 됐습니다. 왜냐? 여기에 지금 생산유발효과 3조 7000억, 부가가치효과 1조 5000억, 고용유발효과 3만 3000명, 이것 어디서 근거 돼서 나오신 거예요? 이것 서너 배 부풀려졌어요. 뭐냐면 유니버시아드대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국회에 나오시면서 보고서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또 정말 부정적 효과까지도 감안을 해서 함께 극복하고 뭔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때, 지금 인천에서 매일 부채에 대한 이자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정확한 액수는……

○임수경 위원 11억씩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이 여기 특위 위원으로 많이 계시는데 평창동계올림픽도 애초에 사업비 8조 8000억에서 지금 13조까지 올라갔습니다. 폭증됐어요.

광주는 지금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선수촌 부지를 이용하시는 등 여러 가지 예산절감효과를, 그런 노력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재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대회는요.

지금 현재 광주시 부채 얼맙니까? 9000억 가깝지요? 8922억.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1조 조금 못 됩니다.

○임수경 위원 8922억.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는 얼마인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1800억 정도……

○임수경 위원 1800억이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임수경 위원 광주시 지방채가 2012년까지 감소하고 있었어요, 1200억 원대로. 그런데 지방채액 13년부터 1600억, 2014년에는 2163억까지 전년 대비 33.7% 올라갔다는,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채무누적액도 점점 감소하던 것이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로 지금 8922억까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제가 가진 자료는 광주발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어요. 여기에는 생산유발효과를 8000억~9000억, 부가가치유발효과 4100억~4600억 사이, 취업유발효과에서도 1만 명~1만 2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왜 광주시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이렇게 3배 이상 심지어 4배까지 부풀려져서 나왔느냐? 예전 자료 제가 보니까 2013년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신청하실 때도 광주광역시 자료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하고. 긍정적인 수치만 확대해서 실적을 부풀리면 명확하게 과장된 경제적 효과예요.

그래서 대회를 유치하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성공적 개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준비하시고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임수경 위원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임수경 위원 아까 3·1절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 말씀해 주셔서…… 그 자리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참석 안 했습니다.

○임수경 위원 저는 그때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받아 적었어요, 감동적이어서요. '통일은 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이고 미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실질적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오늘 그냥 제가 드는 느낌은 문체부, 혹은 차관께서 어떤 의지가 좀 없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까 답변도 '남북 단일팀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그게 찬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색 국면입니다. 탄도미사일 날아오고 있고 정치·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강화될수록, 사실은 문화교류·체육교류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대회에 남북교류 협력을 성사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우리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봤지만 팀을 성사를 안 시켜도 폐막식에 참석하신 북

한의 인사들로 인해서 그나마 인천대회의 성패나 이런 것들, 또 국제사회에 상징적인 의미들이 크거든요.

유소년축구대회 연천군에서 했잖아요. 청소년들, 15세 이하 소년축구단, 마찬가지로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정부가 너무 경색되게 지금 접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임수경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건 저희가 이게 종합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대회나 축구나 일반 기타 단일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자체든지 각종 협회에서 나름대로의 남북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대회로서 단일팀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팀이 오는 거라든지 응원단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남북간에 좀 더 교류가 활성화되는 데 저희도 전혀 지금…… 그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수경 위원 시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저도 방금 문체부에서 그런 판단을 해 주고 계시지만 아까……

○임수경 위원 아니요, 경제적 효과 분석이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경제적 효과 분석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데 아무래도 처음에 아마 유치할 때 좀 과하게 부풀려져 있는 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좀 못 살피긴 합니다마는 한국은행 광주본부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전국의 생산유발 효과를 그렇게 했고요. 광주는 1조 9000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는 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준비, 유치할 때 단계 보고서를 오늘 4개월 앞둔 시점에 국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아니, 전국이라는 말씀이 앞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조사를 저희들이 참고했었습니다.

○임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임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주U대회 지원 TF팀 구성 운영, 정말 시급해서 구성된 긴급대책회의'이 자료 어디서 만드셨지요? 광주에서 만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문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염동열 위원 문체부에서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문체부에서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자아 반성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광주에서 만든 것 같아서……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을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요 바로 저희들이 메가이벤트(mega event), 국제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짚으라는 겁니다.

제가 인천아시아게임 현장에 두 번 방문을 해서……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국제 메가이벤트는 실질적으로 그 대회 기간 동안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가의 신뢰도를 높여 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남는 유산은 결국은 문화관광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인프라를 제가 인천에 가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향토적 가치, 그리고 마을이 되었든 어떤 시설이 되었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 콘텐츠를 연결해서 하나의 벨트화시켰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어요.

그이후로 이제 아시안게임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다 잊어버립니다, 인천. 소치도 6개월이면 잊어버리고 밴쿠버도 6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남는 것은 결국은 그 메가이벤트를 통해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관광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

요한 거예요.

물론 축제, 국가의 브랜드 가치 좋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속을 차리자는 겁니다, 잇속을 차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TF팀이 긴급 구성된 것은 늦었어요, 사실은. 여수엑스포도 1년 남겨 놓고 되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기 지금 8개 예시하는 것을 보니까, 19개지요, 다 무형의 문화관광 인프라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 와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의 향취를 느끼고 갈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유형으로 남는 관광 콘텐츠가 있어야지 이 무형도 함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평창올림픽도 이제 3년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국회의원 될 때부터 지금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게?

여기에 보니까 내용을 잘 적었네요. 예술사업은 총 19개인데 테마형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하나예요. 유형으로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산 절감에만 신경 썼다는 거지요. 문화관광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니버시아드 끝나고 나면 광주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우리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보게 되면 '국제대회를 일곱 개나 치른 문체부는 아직까지 국제경기를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및 부가창출 방안에 대한 지침 경험 등이 부재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광주에서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어떤 직원이 했는지 그 직원한테 보고서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본 건데 역으로 문체부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좀 이거 만드세요. 광주가 갖고 있는 여러, 김치도 있고 문화관광…… 아시아중심문화도시전당 이거 언제 오픈합니까?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9월에 오픈합니다.

○염동열 위원 이거 좀 당겨서 할 수 없어요, 이때 맞춰서?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임시 개관해서 그때 행사를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있는 것은 세팅만 잘해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메가이벤트에서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는 것이 뭐냐, 흔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역사회 개발과 지역주민들의 소득 개발과 국가이익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메가이벤트는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전반에 걸쳐서 이것을 연결해서 그것을 가치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가 지금 보니까 그런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 좀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체부도 계시고 광주도 계시니까 지금부터라도 광주가 갖고 있는 인근의 모든 관광인프라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세요. 그리고 관광회사한테 아웃소싱을 주더라도 루트를 만드세요, 관광루트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루트를 만들어서 상품을 진열대에 올리세요.

광주유니버시아드에 가면 1박 2일, 2박 3일의 이런 상품이 있다, 어디서 점심을 먹고 어디서 저녁을 먹고 어떤 곳을 구경하고 하는 상품을 마켓 진열대에 올리세요.

저는 정말 너무 딱합니다. 왜 이런 돈을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서 메가이벤트를 하면서 왜 사라지는 이벤트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것을 보고 인천아시안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문화행사 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영상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메가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외국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랜드마크 정도, 관광상품 정도를 만들어 줬어야 인천도 우리가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아시안게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주유니버시아드도 제가 볼 때 그런 준비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김종 차관님, 너무 대회 그 자체에만 신경 쓰셔서는 안 돼요. 물론 담당자들, 공무원들은 그 성적표가 중요하고 그 숫자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세에 남는 이런 소득,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당장은 그것이 어떤 평가를 못 받을지 모르지만 후대에 남는 메가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도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

고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이제 이전 관계라든가 경기장 이건 문제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IOC와 IF와 조직위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를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잠깐 통화되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또 북의 뒷북을 치는가?

총점검을 해서, 국회의원 혼자인 사람도 제가 직접, 지금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올림픽에 대한 문제점 전부 다 제가 다 열거해서 써 놨어요. 우리 측은 관계된 직원이 얼마이고 조직위 직원이 얼마입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 나서 이걸 이전해야 한다, 옮겨야 한다, TF팀 구성해야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 방에 5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관한 책? 제가 직접 썼어요. 한번 보세요. 그것 만들었는데 안 보더라고요. 또 이전에 대한 것을 불거지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국가의 재산이 효율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고 그래야 되고 또 경기장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왜 자꾸 뒷북을 치는 거예요? 정리를 깔끔하게 끝내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12일 날 또 한다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주시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관광인프라 여기에 대한 철저한 상품을 지금부터 만드세요. 관광회사들 끌어 모아서 아웃소싱 줘서 만들어서 그 상품 자체가 하나의 상품마켓에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청년문화난장'과 아까 말씀주셨던 아시아문화재단 개관에 맞춰서 이제 1시간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남도의 문화와 관광상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구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가 여러 가지 국회의 다른 일정 때문에 좀 지연되어서 열리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질의시간 확보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U대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대회 안전, 두 번째가 북한팀 참여를 통한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관계개선도 가능하다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응원단, 단일팀 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특별하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인 인천아시안게임을 전체적으로 다 치를 때 같이했던 지역의 의원이고 또 시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더욱더 U대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광주조직위가 비용 절감과 시설 안전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회시설들을, 68개의 시설 중에서 65개의 시설을 개·보수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비용 절감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그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마련, 시설에 대한 신·개축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서 앞에서 지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관련해서는 법안을 이미 내서 교문위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정부가 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기는 했지만 과연 국제경기대회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회는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차관께서는.

그다음에 대회를 준비하시는 조직위나 또 광역시에서 특별하게 이 안전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기능을 보완해서라도 가져 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것은 그전에라도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거기에 맞게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북한 참여에 대해서는 방향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여러 개 국제경기대회가 열렸는데 북한선수단이 참여한 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우리 차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작년 아시안게임 때 마지막으로 참가했습니다, 북한이.

○윤관석 위원 선수단만 참여했지요, 응원단은 오지 못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응원단은 2003년에 대구유니버시아드 때 왔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때 마지막으로 하고 끊어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 북한 좋으라고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회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고 관심도 또 흥행 포인트도 만들어 내고 또 남북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궁극적으로도 우리 정부에도 국민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데 이게 사실 방향이나 시기가 와도 준비하는 주체의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이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선수단 발표는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 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전에 유소년축구를 2010년, 2011년부터 계속하면서 교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고 작년 5월 초엔가 발표를 했어요, 북한이 일찌감치 '선수단 참여하겠다'. 사실 선수단이 오면 응원단이 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뜻밖에도 마지막에 응원단이 참여가 되지 않으면서 흥행 포인트를 놓쳤던 그런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U대회도 북한팀의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치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은 이미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큰 방향은 얘기했다고 보고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문체부에서 북한선수단 참여가 항상 복잡한 것 때문에 그것을 주저해서도 안 되고 타 부처에 넘겨서도 안 되고 먼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 또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교류 사업들을 해내고 자꾸 제안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유치하겠다는 아주 상당한, 지금 광주시에 남북단일팀 구성이나 공동응원단 구성을 위한 범시민협의체 이런 게 좀 만들어져 있나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윤관석 위원 있지요?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윤관석 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꼭 참여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 대회 성패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작년에 인천아시안게임 준비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기초사업을 통해서 선수단의 참여를 이끌어 냈는데 응원단 참여가 안 돼 가지고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적극성이 있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회 마지막 날 폐막식 때 북한의 소위 당·정·청 실세 3인방이 폐막식에 날아와 가지고 국제경기대회가 얼마든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여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의지들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작년에도 이미 한 번 불발된 적이 있었는데 불만족스럽습니다.

임수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회 준비에 대한 적절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여러 가지 방송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선수단이나 응원단 참여가 또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흥행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직위와 자치단체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 노력을 부탁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마디씩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

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저희가 4월쯤에라도 일개 종목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들을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안전과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문체부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조직위와 지금 광주시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윤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에리사 위원 얼마 전에 인천아시안게임 끝나고 제가 특위를 할 때 문체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조직위가 혹시 도움이 되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분명히, 이것이 지방자치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책임과 그분들의 언행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배치돼 있는 세탁소면 세탁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안내는 안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언론에도 약간 노출이 됐지만 자원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시합을 보고 있고 사인을 받으러 다니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들 관리가 좀 더 섬세하게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선수단은 도착했는데 연습장 배치가 안 됐습니다. 국제대회가 통상 도착하면 연습장 연습시간이 딱, 스케줄이 이미, 도착하는 각국의 일정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습장의 시간 배정과 셔틀버스 배정이 필히 꼭 돼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섬세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셔틀버스가 연습장을 이동하는 것과 또 시합장을 이동하는 것, 시합기간에도 연습장을 갑니다. 또한 그들이 쇼핑을 간다든지 이럴 때 차량 문제, 최소한 셔틀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어떤 차를 이용하라든지 그 사람들의 수송과 이동에 대한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올 때는 굉장히 성대하게 잘 맞이합니다, 공항에 나가서 철저하게. 갈 때는 행사가 끝나서 알아서 가라는 식으로, 인천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셔틀버스가 매 30분마다 운영하던 게 1시간이 돼야 된다, 1시간이 돼야 될 이유가 없어요. 30분이 됐는데 사람이 안 타면 안 가면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온 사람들이 갈 때까지 올 때의 기분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선수촌장을 하면서 여기 지금 광주U대회 선수촌도 보니까 병원에 안과·내과, 참 이것 고루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학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정형외과보다는 재활의학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방자치가 하다 보면 조직위원장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우리가 광주U대회의 협력업체였다라는 그 한 줄 넣고 싶어 합니다. 그것보다도 선수촌에 들어와 있는 외국 선수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전문의사들이 들어와서 배치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국제적으로 이번에 박태환 선수 문제도 있었지만 도핑센터, 지금 도핑교육을 대학 애들을 한 500명인가 했다고 했는데 도핑교육도 철저히 돼야 되겠지만 선수촌 안의 도핑 담당관들, TEU 임원들 이런 분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곳곳을 조금 더 국제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시료 채취하는 도구들이 깔끔하게, 정말 품위 있게 보관될 수 있게, 너무 소홀하게 이것은 그냥 도핑 검사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한, 앞으로 평창도 해야 되는데 국제 담당관들이나 IOC나 이런 세계의 대학스포츠연맹에서 와서 보고 '야, 역시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경기력뿐만 아니라 운영과 준비가 참 철저하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지금 남북 문제가 사실 정치적인 문제로 굉장히 민감한데 렘케라는 분 저도 잘 압니다. 렘케라는 분에 의존돼 있는 그러한 오가는 이야기들이 광주의 몇 개의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는 것

들이 부추겨져서 북한하고의 어떤 우리하고 오가는 문제들이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런 것을 비롯해서 광주U대회가 언론이 도와주는 U대회가 될 수 있게 언론 관리 같은 것들도 좀 특별히 신경 써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게 애 많이 쓰십시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위원님이 하나하나 세세한 데까지 짚어 주셔서 대회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런던대회나 소치대회 같이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성공하는 대회로 만들도록 그리고 선수촌의 의료 문제나, 제가 또 의료인 출신이라 더욱더 깊게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시장님, 제가 아까 공무원 얘기를 그냥 빗대서 했는데 그렇게 일상적인 것이 스포츠 현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 근사합니다. 가 보면 물리치료실 베드(bed)가 3개밖에 없으면 안 되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2만 명 가깝게 오는 선수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물리치료실 베드가 많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현장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받으십시오.

○광주광역시장겸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장 윤장현 예.

○위원장 박주선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염동열 위원 저 잠깐만 쓰겠습니다.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2분이 짧은 겁니까?

(웃음소리)

○염동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내용이 아주 좀 이상해서요.

○위원장 박주선 예, 하세요.

○염동열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문체부에서 만든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TF 만든 것 말씀이십니까?

○염동열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TF를 만든 것 가지고, 보도자료는 저희가 냈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 자료, 나는 깜짝 놀란 게 지금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문체부에 한번 지적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한 것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을 제가 한번 봤으면……

○염동열 위원 TF는 지금 문체부가 만들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 자료는 지금 실무자에 의하면 광주 자료 같다고 합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면 TF는 어디서 먼저 만들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TF 만드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염동열 위원 좀 늦었어요.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광주하고 협력을 해서 문화관광부가 이 TF 주도하셨으니까 한번 세심하게, 내려가서 관광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염동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주선 2분 못 됐어요,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염동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괜찮아요?

○염동열 위원 예.

○위원장 박주선 문체부차관님, 제가 한 말씀 좀 여쭤 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위원장 박주선 U대회 관련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남북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공동 선수 입장 또 지난번에 인천아시안게임하고 관련된 북한 측 당국자들의 격려 방문 등등 이런 것을 우선은 통일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문체부의 건의나 요청을 받아서 대북 창구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직통전화가 가동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정부 내에서 이번에 대통령의 8·15 기념사 취지도 살리고 정부에서 2712억, 전체 6800여 억이 들어가는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흥행에, 또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단일팀 등 북한의 적극

적인 참여가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내에서, 문체부에서 환기를 시켜 가지고 전화통지문이라도 계속 보내서 지금 단일팀 구성 문제를 비롯한 U대회에 북한의 적극적인 참석을 좀 독려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것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단일팀 구성은 물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전화통지문이라도 계속 보내 가지고, 북한 측에서 거부하면 하는 대로 또 거기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또 지혜를 모아 가면서 계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아시안게임선수촌장을 지내셨던 이에리사 위원님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염동열 위원님 또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돼서 큰 역할을 하셨고 지역구를 두고 계신 윤관석 위원님 등등은 정말로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매우 소중한 부분을 짚어 주기도 하고 또 제안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된 지방조직위원회에서,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공 여부는 책임져라 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KTX를 증편 운행해 가지고 선수단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문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혜자 위원께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 특위 차원에서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비롯한 북한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남북단일팀 등 구성 촉구결의안을 여야 간사들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특위 차원에서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논의해 주셔서 다음 12일 날 회의가 개최될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되는 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 문체부 2차관님,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겸 대회조직위원장 등 관계자 모두는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의 지적과 조언을 유념해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 차관님, 윤장현 시장님과 해당 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권성동	김기선	김 현	박대동
박주선	박혜자	안민석	염동열
윤관석	이강후	이에리사	이한성
임수경	최동익	황영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 재 룡
전 문 위 원	이 정 화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 종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위 원 장	윤 장 현
사 무 총 장	김 윤 석